

[보도자료] 쿠팡, 강원 화천에서 지역주민 등 600여명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증진 지원”

2026. 9. 17.



- 의료진 등 40여명 참여 어린이·청소년, 북한이탈주민 포함 지역주민 건강검진 제공
- 제2하나원, 화천군, 대한중앙의료봉사회와 함께 ‘온동네 케어’ 개최

2026. 09. 17. 서울 - 쿠팡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을 찾아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쿠팡은 16일(수) 강원 화천군 제2하나원 체육관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쿠팡 온동네 케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2하나원, 화천군, 대한중앙의료봉사회 등이 함께했다.

제2하나원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2하나원의 지역사회 개방을 앞두고, 의료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화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청소년 200여명을 포함한 지역주민 550여명과 북한이탈주민 50여명 등 총 600여명이 함께했다.

대한중앙의료봉사회 소속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진 40명이 참여해 의과 진료(혈액검사·수액주사 등)를 비롯해 치과·한 의과 진료, 골밀도 검사, 치매·우울검사, 아동 성장 발달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주민들의 기념사진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인화해 선물하는 '이동식 사진관'도 운영했다.



개회식에는 장영철 쿠팡 사회공헌실 전무를 비롯해 김남중 통일부 차관, 김영일 제2하나원장, 김세훈 화천군수, 조웅희 화천군의회 의장, 박대현 강원도의원, 송종섭 강원북부하나센터 센터장, 이은우 대한중앙의료봉사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화천군민의 건강을 살피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해 주신 쿠팡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제2하나원의 개방을 앞두고 ‘쿠팡 온동네 케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제2하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군민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온동네 케어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